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

생활가전 '세계 1위' 전략기지로

광주지역 매출 1위 기업인 삼성광주전자가 내년 1월1일자로 삼성전자에 흡수통합 된다.

수 3473명에 이르는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 중 하나다.

되는 부서와 임원들의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밀금형센터 연계 전략기지로=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에 건립된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가 다음달 11일 준공식과 함께 본격 가동된다.

사업 중복·우수인재 유치 어려워 합병 결단

금형센터 연계 신기술·디자인 혁명 메카

아왔다.

삼성광주전자는 지난 상반기 매출 1조 9324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5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였다.

◇직원 처우·지방 세수는=합병에 따라 삼성광주전자 전 임직원의 고용은 승계될 전망이다.

다. 지난해 기준 삼성광주전자가 납입한 법인세는 85억5500만원, 2008년에는 38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지방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만 바뀐 공장이나 근로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정밀금형개발센터의 디자인 혁명에 삼성광주전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생활가전 세계 1위 도약의 전략·배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정밀금형개발센터의 디자인 혁명에 삼성광주전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생활가전 세계 1위 도약의 전략·배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정밀금형개발센터의 디자인 혁명에 삼성광주전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생활가전 세계 1위 도약의 전략·배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은행 인수위원장에 박홍석씨

지난달 31일 출범한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최근 첫 회의를 열어 임원진을 선출하고 주요 운영방향을 확정했다.

에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부위원장에 고재일 대창운수(주) 회장, 간사에 전영복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을 각각 주요 운영방향을 확정했다.

또 인수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7가지의 주요 활동 방향을 협의했다.

활동 ▲인수자문사 선정 ▲광주은행 자산평가 및 실사 ▲주주 구성 및 인수자금 모금 ▲사·도민 홍보 ▲기타 사업 등을 펼쳐기로 했다.

인수위 운영 재원은 광주은행 인수추진에 참여하는 주주의 출연(출자금의 0.5%)과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순수 지역 토착 상공인을 인수자본 참여자로 우선 유치하고, 지역 연구 대기업과 출향인

사 등의 지분 참여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업무협의를 위해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상건례로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동안 논의한 인수위의 주요 활동범위 등에 대해 협의했다"며 "다음 회의는 빠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경 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 '나눔테크'

프랑스에 800만 달러 수출 계약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에 위치한 첨단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나눔테크(대표 최무진)가 최근 프랑스 JPO 테크놀러지사와 3년간 800만 달러의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안될 때 자동으로 환자의 심장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충격을 전달해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설계된 의료장비다.

나눔테크는 지난 2005년 8월 설립,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어 지난해 심장마비환자의 심장을 소생시키는 자동심장제세동기를 개발했다.

지난해 이라크에 수출되는 구급차에 이 기기가 설치되는 등 의료시장 불모지였던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6월 코트리카주관하는 멕시코 해외시장 전시회, 9월 상하이 ICT 로드쇼 참가 등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무진 사장은 "더욱 빠르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해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지역 경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제철소 후판제품 첫 출하

광양제철소는 이날 후판공장에서 김준식 소장과 임직원, 송말호 두산중공업 전무 등 고객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판제품 초도출하 기념식을 열고, 첫 제품을 두산중공업에 납품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17일 후판제품을 첫 출하했다. 지난 10일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이 본격 가동된 지 일주일만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17일 후판제품을 첫 출하했다. 지난 10일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이 본격 가동된 지 일주일만이다.

목포조선공업

법정관리 신청

자산규모 500억원대로 68년 역사를 지닌 목포조선공업이 조선업 불황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일 광주지법은 "목포조선공업이 지난 14일 회생·파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포조선공업은 신청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정된 계속기업가치는 437억원이지만 청산가치는 374억원에 불과하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기간에 채무급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여·수신 큰폭 감소

7월 중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7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수신은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기관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전달의 증가(+5748억원)에서 감소(-2344억원)로 전환했다.

여신(대출금 기준)은 예금은행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달(-2576억원)에 비해 감소폭(-106억원)이 축소됐다.

예금은행의 수신은 정예예금의 증가에도 수시입출식예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달의 증가(+1036억원)에서 감소(-2016억원)로 전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추석연휴, 주식 안고가라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돌파한 이후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 행보다.

코스피지수는 이런 흐름에서도 긍정적인 해외변수와 이를 토대로 한 외국인 매수확대를 바탕으로 추가 반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는 3일간의 추석 연휴 때문에 거래가 줄면서 종목·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 반등 추세에 변화를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주 후반 반도체를 비롯한 IT관련주가 대거 반등하면서 장세 전망을 더 밝게 해 주고 있어 추세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국내 기술주의 반등으로

한층 고무된 투자심리에도 연휴기간에 해외변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들고 가야 할지 비중을 줄이고 가야 할지 갈등을 겪고 있다.

연휴에 있을 미국 주요 경기지표와 이벤트 중에 미국의 기존주목매매와 신규주목매매는 최근 급락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전망이다.

따라서 물발 약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글로벌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휴를 앞두고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보유하는 쪽이 바람직한 자세 대응이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증권과 조선·철강·IT·제약·건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로또복권 (제407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 위, 당첨금(원),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Market indicators: 코스피지수 1,827.35 (+24.77), 코스닥지수 483.25 (-1.23), 금리 (국고채 3년) 3.45% (+0.05), 원·달러 환율 1,160.50원 (-5.2).

Large advertisement for '한가위' (Mid-Autumn Festival) featuring a tree with apples and a list of public notaries (공인중개사) with their names and contact information.